

# 소통협력공간 통해 활성화 다짐

### 군산시, 성과공유회 개최... 지역문제 발굴·해결방안 모색 혁신 프로젝트 추진

군산시가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로 로컬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실험프로젝트 진행에 나서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선정돼 민·관·산·학 등이 함께 일상 속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매력적인 지역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소통협력센터(센터장 신연아)는 올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으로 '군산다방', '몽치클럽'이라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저변을 확대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걸다가 보다가'라는 현장체험형 자연관찰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해 군산 고유 생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지역 내 미비했던 도서관과 콘텐츠 확충을 위해 디딩룸 미딩룸 서점 커뮤니티 프로젝트도 시작해, 군산에 있는 13개 독립서점들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작가 초청 포럼, 군산 서점·도서관 지도 제작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지역 상가와 협업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군산 보틀워크'도 진행하는 등 문화·생태·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회실험을 진행해 왔다

시는 19일 '소통하는 사이' 발간일 맞이하는 주제로 소통협력센터 군산 성과공유회를 갖고, 소통협력센터 1년 간의 회고를 통해 그간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시민문화회관 재개

관 준비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 "올해가 추진하기 어려운 민간영역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해였다면, 2024년은 소통협력공간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내는 본격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며 "반쪽도 평가가 높은 프로젝트는 확대 시행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 내년도 나운동 일원을 중심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내년 상반기 시민문화회관 재개관에 앞서 현재 영화동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소통협력센터를 시민문화회관으로 조기 이전시켜 나운동 일원 활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영등시립도서관은 지난 16일 지역 초등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BOOK)적 북(BOOK)적 도서관 나들이'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 '북적북적 도서관 나들이' 성료

### 익산시, 초등 고학년·중학생 대상... 큰 호응 얻어

익산시 영등시립도서관은 지난 16일 지역 초등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BOOK)적 북(BOOK)적 도서관 나들이'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북(BOOK)적 북(BOOK)적 도서관 나들이'는 미래 인재인 초·중학생이 하루 동안 익산의 특색있는 도서관과 박물관 등 귀중한 지역 문화 자산을 돌아보며 재미있는 체험과 유익한 강연을 즐기는 문화여행이다.

일정은 생태북화 도서관으로 조성된 유천도서관에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유천도서관 곳곳을 둘러보며 생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천연비누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어 백제 왕궁 박물관으로 이동해 전문 해설사와 함께 문화유적을 둘러봤다. 나들이 버스는 전북 최초의 한옥형 도서관인 금마도서관으로 향했다. 참가자들은 도서관 사서의 해설을 들으며 금마도서관만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겼다.

이날 나들이는 다시 유천도서관으로 돌아와 2023 익산시 한 권의 책 청소년 권장 도서인 '홀홀'의 문경민 작가 강연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 작가가 '우리가 알아야 할 고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도 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나들이는 지역에 분포해 있는 문화시설을 압축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심을 갖고, 도서관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양하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며 "참가자들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시립도서관은 생활 속 책 읽기 저변 확대를 통한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구현을 위해 △청소년 독서회 △청소년 독서 체험 등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올해 특별교부세 98억원 확보

### 정치권 공조 등 발 빠른 대응 펼쳐... 예산 적기 확보로 현안 추진 원할

익산시는 올해 특별교부세 총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주는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제한되는 재원이 다 주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과 긴급한 재난사업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며,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정해진다.

익산시는 상반기 38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3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더해 시책추진 특별교부세 등

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총 9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 긴급재정 기조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과의 공조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김수홍(익산갑)·한병도(익산을) 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주력해왔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중 지역 현안은 △팔봉 주민센터

공간조성(7억 원) △오산면 진입도로 개선사업(7억 원) △도심권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6억 원) △동서로 보도 정비사업(2억 원) 등 4개 사업(22억 원)이다.

재난 안전 사업 분야는 △한열읍 와리 우수박스 설치공사(8억 원) △북쪽 5교 교차 시설보강사업(3억 원)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3억 원) △춘포 익산천 정비사업(2억 원)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강화사업(2억 원) 등 5개 사업(16억 원)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강설 속 제설작업 총력... 긴급 대응 '이상 무'

익산시가 주말 사이 대설·한파 특보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서 교통대란 등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오후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104명 이상 근무)를 소집하고 제설작업에 가동 행정력을 모두 집중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18일 오후 5시를 기해 익산시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실제 16~17일 익산시 평균 적설량은 6.9cm로 집계됐고, 상당면(10.5cm)과 삼기



면(9.9cm), 한리면(9.2cm), 금마면(8.8cm)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이에 시는 제설 장비 12대와 제설제 등 자재 45톤, 인력 28명 등을 동원해

21개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팔봉중앙운동장과 익산역 서부광장 왕궁면 익산 나들목(IC), 평화육교, 춘포면 금강교 모현교 등 얼어붙은 주요 도로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 진행했다.

늦은 밤 눈길에 주행하지 못하고 팔봉동 종합운동장 도로 인근에서 멈춰 있던 대형 화물트럭 여러 대가 속도감 있는 제설작업 덕분에 운행할 정상 재개하기도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최우수 선정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21년 최우수, 2022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도지사 표창 및 2025년도 예산 추가지원이라는 부상을 받게 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발굴해 제공하는 정책이다.

시는 총 24개 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6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09개소에서 4,37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14개 시군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시는 사업관리, 인력관리, 기관관리, 조직운영, 충실성 등 5개 영역 10개 평가지표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장애인복지 시설 3곳 '기관특별상' 수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자립을 위해 힘써 온 익산시 기관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지역의 장애인복지 시설 3곳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주관한 2023년 제8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에서 기관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익산시장 애인종합복지관(인화동)과 훈훈한 집(용안면), 동그라미(팔봉동)다

이번 기관특별상에는 전국 294개 기관이 접수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정회원 비용과 공제사업 참여 여부를 세부적으로 정량화해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심사한 뒤 100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에는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금 각 300만 원씩이 주어졌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내년 상반기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오는 2024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5명, 공공근로사업 66명으로 총 11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주·중·토·일·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8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취업취약 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로, 참여자는 1일 6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하며, 임금은 시급 9,800원과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국가 및 일반근로단체 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